

美 상호 관세 대응 미국-인도 무역 협상 본격화

□ 인도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은 3월 25일부터 4일간 양국 간 무역협정(BTA) 협상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으며,¹⁾ 성명서를 통해 2025년 내 1차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밝힘.
 - 양 측은 △시장 접근성 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공급망 통합 심화 등의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성장, 공정성, 국가 안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미국 측은 △자동차, △주류, △석유화학제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와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으며, 인도 측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3월 25일, 인도 하원은 다국적 IT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부과하는 ‘균형부담금(Equalization Levy, 일명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²⁾’폐지를 포함한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4월 1일부터 발효됨.
 - 이는 구글, 메타(舊 페이스북), 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동 법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자본재 및 기계류 63개 품목(전기차용 35개, 휴대폰용 28개)의 수입 관세를 철폐(2월 2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됨.
- 앞서 인도 재무부는 2월 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형오토바이, △고급차, △태양전자·모듈, △기계류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평균 관세율을 11%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월 13일 정상회담 직전 버번위스키 관세를 인하함.

□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산품과 자동차 부품, 제약 등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약 450억 달러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남용국(tariff abuser)’ 또는 ‘관세 왕국(tariff king)’이라고 지칭하며 보복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2021~23년 평균 기준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대만에 이어 7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³⁾
 - WT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trade weighted tariff rate)은

1) 2025년 2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5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Mission 50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2)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이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6%를 원천 징수하는 형태로 2016년 도입되었으며, 인도 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3) 김경훈 외(2025). 미국-인도 협력 관계 및 2025년 2월 정상회담 주요 내용.

12.0%로, 미국(2.2%)은 물론 중국(3.0%), 멕시코(3.9%), 캐나다(3.4%), 일본(1.9%), 한국(8.4%) 등을 크게 상회⁴⁾

- 인도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약 87%(금액 기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⁵⁾

○ 특히 양국 간 평균 관세율 차이가 큰 △생선·육류, △가공식품, △자동차 부품, △귀금속, △제약, △전자제품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미국-인도 주요 품목별 교역 및 관세 현황(2024년)

(단위: 백만 달러, %, %p)

| 부문별 순위 | 품목군 | 인도 → 미국 | | 미국 → 인도 | | 관세율 차이 |
|-----------|-------------------|-----------|------|----------|--------|-----------|
| | | 금액 | 관세율* | 금액 | 관세율* | |
| 농업 | 1 주류 | 19.20 | 2.49 | 452.21 | 124.58 | 122.10 |
| | 2 유제품 | 181.49 | 1.54 | 2.43 | 39.78 | 38.23 |
| | 3 생선, 육류 냉동 및 가공품 | 2,586.96 | 0.59 | 28.51 | 28.42 | 27.83 |
| | 4 살아있는 동물 | 10.31 | 0.66 | 16.02 | 28.40 | 27.75 |
| | 5 가공식품, 설탕, 코코아 | 1,038.66 | 4.67 | 120.47 | 29.66 | 24.99 |
| 비농업 | 1 자동차, 자전거 및 부품 | 2,804.93 | 1.05 | 419.53 | 24.14 | 23.10 |
| | 2 신발, 신발류 | 457.66 | 8.77 | 3.38 | 24.33 | 15.56 |
| | 3 다이아몬드, 금, 은 | 11,884.16 | 2.12 | 1,916.18 | 15.45 | 13.32 |
| | 4 제약 | 12,726.60 | 0.01 | 567.64 | 10.91 | 10.90 |
| | 5 조화, 우산, 모자 | 34.94 | 2.59 | 0.76 | 12.89 | 10.29 |
| | 10 전기, 통신 및 전자제품 | 14,395.25 | 0.41 | 1,343.62 | 7.64 | 7.24 |

주: *무역가중평균관세율. 부문별 순위는 관세율 차이 기준. 농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비농업은 24개 부문으로 분류. (음영) 인도의 대미 수출 금액이 큰 품목

자료: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 (Feb 2025), 'Reciprocal Tariffs and India'

- 미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무역협정 조기 타결을 위해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양국은 2025년 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주 내 부문별 협상에 착수할 예정
 - 인도는 미국산 수입액의 55%에 해당하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⁶⁾
 - 다만, 인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약 30%(수출액 기준)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상호 관세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인도의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 관세 인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경쟁력 강화. △무역 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 촉진 등의 효과 기대⁷⁾


4) WTO, World Tariff Profiles 2024. (인도) 전체 12.0%, 농산물 65.0%, 비농산물 9.0%

5) Reuters (March 25, 2025). 'Exclusive: India eyes tariff cut on more than half of US imports to shield its exports, sources say'. 4월 3일 미국의 상호 관세안 발표(인도 26%) 전 추산한 금액으로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

6) Ibid.

7) BBC (March 20, 2025), 'Will Trump's tariff war spark big-bang reforms in India?'; Firstpost (March 15,

- 구글세 폐지로 추가적인 무역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디지털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인도 디지털 경제의 성장 촉진 기대



윤지현 전문연구원

2025), 'How Trump's tariffs can be opportunity in crisis for India'; Policy Circle (March 21, 2025), 'Tariffs, trade wars, and opportunity: India must shed its protectionist mindset'